

보도자료

샌프란시스코 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활동과 영업 재개를 계속 중단한다

등재일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미용 및 네일살롱 등 개인서비스는 지금으로서는 다시 열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 런던 브리드 시장과 보건국장 그랜트 콜팩스 박사는 6월 29일부터 시작된 재개잠정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주요지표는 확진과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가 먼저 진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자료를 근거로, 미용, 마사지, 문신, 귀-몸 뚫기, 손-발톱 다듬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서비스는 다시 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6월 29일이나 7월 13일 다시 허용될 예정이었던 다른 활동이나 사업체도 계속 열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음식점 실내 식사,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옥외 빠, 실내 전시관이나 수족관, 야외 수영장, 그리고 약속에 의한 부동산 오픈하우스가 포함된다. 사업장 재개와 주요지표에 관한 시의 새로운 입장은 7월 17일 금요일 다시 발표하게 된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활동과 사업은 계속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며, 집을 나설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권한다.

브리드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봄 자택격리령을 훌륭하게 따라주었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계속 분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오래 갈 것으로 보여,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체가 안전하게 다시 열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밖에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시가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7월 13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입원환자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샌프란시스코가 현재 재허용을 잠정중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활동을 제한했다. 주안점은 여러 가족이 뒤섞이거나, 마스크나 개인별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알기 힘든 실내활동에 맞춰져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주의 감시대상에 올라있지 않지만, 베이지역 카운티들은 올라있고, 우리 여러 지역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오늘 아침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확진 4,696건과 사망 50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감지하는 주요지표중 하나인 10만명 당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7로 늘어, 목표치 1.8보다 훨씬 높고, 사업재개를 시작했던 5월 18일 기록했던 3.5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카운티에서 전입해온 환자를 제외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 수의 증가율 또한 사업장 재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지표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 증가율을 10%이하로 억제하는 것이지만, 오늘 현재 3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급성치료와 중환자실 병상을 포함한 우리 의료시설의 수용능력은 급성치료 27%, 중환자실 28%로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

예상계량치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재확산율은 1보다 높으며 늘고 있는데, 이것은 확진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이상을 전염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타주나 타지역에서 보인 것처럼 의료체계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콜팩스 박사는,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라면 확진자 수가 4월보다 10배가 되어, 수 개월 내에 샌프란시스코의 의료체계의 대응능력을 초과할 수도 있다. 우리는 확산을 저지한 경험이 있으며, 효과가 검증된 안전수칙, 예를들면,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밖에 나갈 때에는 서로의 거리두기를 지키며,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는 것 등을 배로 열심히 지키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검진 목표치인 1,800건을 넘어, 평균 2,950건, 오늘까지 총 192,788건의 검진을 실시했다. 검진예약과 결과통보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사영 의료기관에서도 검진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경제 및 인력개발원 조아킨 토레스 국장은, “우리는 마스크 착용, 검진, 집에 머물기, 그리고 가족 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와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그 종업원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오래 갈 것이 확실하다. 모든 샌프란시스코 주민을 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사업재개 결정을 위해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중보건 원칙들을 근거로 각자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의 노출과 전염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되겠다:

어떤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다섯 개의 질문

1. 실내인가 옥외인가? 옥외 활동이 훨씬 안전하다.
2. 가족 외의 사람이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더 위험하며, 피해야 한다.
3.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는가?
4. 서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5.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주위환경은 청결한가?

고려해야 할 사항 네 가지

1. 인원수 - 수가 많을 수록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2. 빈도 - 만나는 빈도가 높을 수록 전염의 위험이 높다.
3. 지속시간 -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전염의 위험이 높다.
4. 거리 - 서로간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전염의 위험이 높다.

사업과 활동 재개의 시점에 관하여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sf.gov/step-by-step/reopening-san-francisco>.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활동/사업 재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보건 주요지표에 관한 추가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data.sfgov.org/stories/s/epem-wyzb>